



## 경기도

### ▶▶ 안성시 구제역·AI 살처분보상 T/F팀 구성

안성시는 구제역과 AI 살처분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하기 위해 살처분보상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지난 5월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안동 구제역 발생 후 올 1월부터 3월까지 소 80농가 2천899두, 돼지 97농가 20만8천429두, AI로 닭, 오리 28농가 96만1천697수를 살처분한 바 있다.

시는 살처분 당시 보상금 가지급금으로 442억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선지급금을 포함한 총 살처분 보상금액이 1천2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보상액은 전국적으로 1조 9천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보상 규모도 역대 최고로 정부에서는 과대 보상이 되지 않도록 살처분가축 및 오염물건 평가시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 보상금을 지급토록 추가 지침이 시달된 바 있다.

그동안 시는 정부 보상지침 변경 및 추가 시달에 따른 적용단가 결정, 농가별 검증작업 추진에 따른 인력 부족 등으로 보상금 지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5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상 평가방안이 협의된 후 안성시는 살처분보상 T/F팀을 2개팀 5명으로 긴급히 구성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오는 7월말까지 구제역 및 AI 살처분 보상평가를 완료하고, 8월말까지는 오염물건 및 기타 보상 평가를 완료하여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연천, 세번째 고병원성 AI 발생

경기 북부 연천군에서 세번째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연천군은 왕징면 무등리 무허가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중인 닭 500마리가 폐사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5월 24일 밝혔다.

이에 방역당국은 이동초소 12곳을 운영하고 해당 농장 반경 500m 안에 닭 4만7천마리를 살처분했다.

경기 북부지역에서 올해 고병원성 AI는 연천을 제외하고 파주, 양주, 동두천에서만 총 7만6천700마리를 살처분, 매몰했다.

## 인천광역시

### ▶▶ 치킨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인천광역시는 시민이 간식으로 즐겨먹는 닭고기 튀김 등을 취급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튀김기름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치킨(닭)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업소에서의 튀김용 유지의 적정관리를 비롯하여 닭고기 튀김의 비위생적인 조리, 절임 무제품에 사용되는 식카린나트륨의 표시관련,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튀김용 유지의 산패를 나타내는 정도인 산가(기준 3.0 이하) 검사 외에도 조리식품에 대한 대장균,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식중독 발

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다.

시는 수거한 튀김용 유지와 조리식품에 대해 법적인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전한 식용유지 사용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영업자들에게 원산지표시 증명서 보관철 2,500여개를 제작해 배부했다고 밝

혔다.

지난해 8월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에 따라 음식점에서는 소, 돼지, 닭, 오리고기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음식점 영업주들은 보관함 등이 마땅치 않아 보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 강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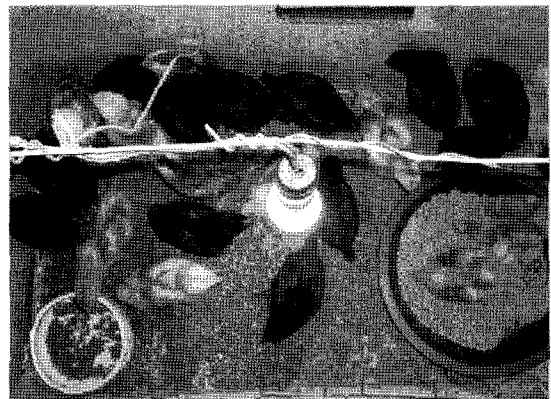
### ▶▶ 홍천, '우리맛닭' 분양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15년에 걸쳐 복원한 재래닭인 우리맛닭을 지난 5월 23일 70개 농가에 3,500수를 분양했다.

우리맛닭은 토종 순계 가운데 빨리 크는 종자를 아미로, 맛이 좋고 병아리 생산이 많은 종자를 어미로 한 고품질 토종닭 실용계 1호로, 산육 능력이 뛰어나 짧은 기간 출하가 가능함은 물론 닭고기 맛을 좌우하는 올레인산 함량이 매우 높고, 콜라겐 함량이 높아 쫄깃쫄깃한 육질과 구수한 고유의 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향후 5년내 토종닭 수요량의 10%를 목표로 분양되고 있는 우리맛닭을 농가에 신속히 보급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공주시, 재래토종닭 분양



공주시가 지난 5월 25일 토종닭 5,205수를 일반시민에게 분양했다.

이날 분양한 닭은 농촌진흥청이 재래 토종닭을 복원한 우리맛닭으로, 지난 4월 분양을 신청한

## 충청남도

### ▶▶ 논산시, 원산지표시 증명서 보관함 배부

논산시는 지난 5월 12일 상반기 일반음식점 정



115농가에게 한 마리당 4,000원에 분양됐다.

한편, 우리맛닭은 농진청 축산과학원에서 지난 1992년부터 15년간 재래닭 품종복원·실용화 사업을 추진해 얻어낸 결과로 맛이 좋은 종자를 모본으로 알을 잘 낳는 종자와 성장이 빠른 토종닭 종자와 교배해 경제성을 갖췄다.

### 충청북도

#### ▶▶ 보은·옥천·영동 가축사육동향조사 실시

충청지방통계청 옥천사무소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18일까지 보은·옥천·영동군 관내 가축사육 농가에 대해 가축동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축산물(한우·육우·젓소·돼지·닭·오리) 수급안정대책 등 축산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분기별(3·6·9·12월초)로 1회씩 표본·전수농가를 방문해 면접청취조사, 비면접조사(전화, FAX, E-mail, 우편조사 등)를 실시한다.

### 부산광역시

#### ▶▶ 사직야구장 주변 '짜통 통닭' 무더기 적발

여름철 부산 해운대, 송정 등 주요 해수욕장에서 기승을 부린 이른바 '짜통 통닭'이 프로야구 시즌을 맞아 사직야구장 주변에서 성업하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판매업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사직야구장 주변에서 짜통 통닭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최 모(30)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프로야구가 개막한 지난 4월 2일부터 최근까지 부산 사직야구장 주변에서 한 마리에 7천원~8천원씩, 모두 120만원 상당의 짜통 통닭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멕시간', '고촌', '페리카니' 등 국내 유명 상표와 비슷한 유사 상표가 인쇄된 종이팩에 치킨을 넣어 판매하고, 일부 업자는 영업신고 없이 비위생적으로 생닭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전라남도

#### ▶▶ 함평서 농식품부 합동 청정 축산운동 실태 점검

전남도는 도내 청정축산운동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합동으로 함평지역에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지난 5월 25일 밝혔다.

이날 점검은 최근 경기도 연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됨에 따라 다시 한번 차단 방역에 대한 분위기 쇄신을 기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함평군 관내 축산농가는 물론 도축장 등 축산 관련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차단방역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소규모 농가에 대한 공동방제단의 직접 시연을 통해 올바른 청소·소독 방법을 지도하는 등 방역지도 위주로 추진됐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도내 전 시·군에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축산농가에 가족의 입식·출하, 소독 추진실태에 대한 방역기록을 의무화하도록 당부했다.



또 근본적인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의 자연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육밀도 준수와 운동장 확보 등 친환경녹색축산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 전라북도

#### ▶▶ 한·EU FTA 피해 예상 축산분야 경쟁력 확보

전북도는 지난 5월 4일 한·EU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EU FTA 발효시 우리도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 등 축산분야가 대부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생산 감소액이 연평균 206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EU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축산분야(양돈, 낙농제품 등)에서 향후 15년 평균 생산 감소액이 2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닭고기는 저장기간이 짧아 냉장육 수입은 어려울 것이나 냉동육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친환경축산기반 조성, 품질고급화, 체계적인 질병예방 시스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46개 사업에 1,165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 ▶▶ 서울·인천·경기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경기도 연천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발생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동질병의 유입 차단을 위해 2011년 5월 19일 0시부터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금 및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단, 5월 19일 도착분까지 반입을 허용했으며, 경기지역에서 출항하는 선박편을 이용하는 경우 5월 19일 선적하여 5월 20일 오전에 도착하는 반입분에 한하여 반입 허용했다.

#### ▶▶ 서귀포시,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제주 서귀포시는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해충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제를 지난달부터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되는 축산환경개선제는 축산환경개선 추진협의회에서 심의·선정한 제품으로 지난 4월 돼지, 소, 닭 사육농가에 대한 수요조사가 완료돼 11개 제품 5만9947kg이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냄새민원다발지역에 대해 소취실험이 완료돼 선정된 미생물제제 및 탈취제 5개 제품을 대상농가와 협의해 공급 및 구입해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 >